

<못 갖춘 신체>

부르르

<박동>

-

무서운 전쟁을 보며
나의 다가올 죽음이 의기소침했어
가슴 한 구석에
두터운 생명감이 부끄럽게 빛났어

모든 건 정말 작다
그 작은 것이 지키는 것

치를 떠는 것
치르르 떨며 오는 것
살아있는 것

한 줌의 잿바람일 수 있었는데
한 사람 분량의 체온을 품고
매일 같이 빛을 진다

<체온>

-

걸음을 출발할 때
상체만 떠있는 혼이라 생각했어
해는 숨어가고
바람은 찢긴 종이결 같이

스름

기억들은 보살핌을 바라듯
어깨에 앉아

나는 누굴 돌볼 만큼
크질 않아서

툭 털어버렸어
잠시 편했는데

다른 감각으로 다시 태어나
기억들이 침범하고 머물러

엷은 전기 벌레들로 왔지
등을 할켜어
얇은 허파엔 철 실가닥
이물감이 꿈틀어
괴롭히길래
나는 그걸 전부 내던지려는데

부푼 몸이 진동해서

텅 빈 쪽으로 기울다

차별 없이 가볍다

발가벗어지며

웃다

아무것도 못 갖춘 신체를 잃다

<못 갖춘 신체>

-

[무생물]

손상한틈사이산산이부수어놓인신경에거슬러서퍼렇게
베이듯불데여스친살갓이시린날끝에영원히쓸려영키게

새삼모르지세상에뭐가너무많아골똥히헤엄치고달려도
하찮은알갱이겨우오슬한입김한번에해결도않고달아나

사소한균열에생생히부수어놓인말씀에눈빛에얼굴빛에
애태우다애태우다그만소실하고남은건형태없는생기뿐

한참을누워조약돌로있다가감감히흠어져잔잔히흠처럼
한때는바위였고지금은모래처럼해산하길보잘것없으니

안아주소서금방떠나가더라도따뜻한눈의영으로오셔서
용서하는마음이눈발쳐내리듯안아주소서곧가시더라도

나중에흠집이성글어아파몸부림침은마지막숨을뿜아서
멧을듯가녀린소망에부동킨채끝내헛것처럼숨거품처럼

<설령>

-

뭐였지

지금
나를 덮은 게
밤새 내린 눈인지

흠흠 일어나려 했는데
디딜 팔이 없음을 기억해

안 가본 길로 더 가려 했는데
다리가 없음을 기억해

거짓말.
기어가려해도 몸통조차 없어

제발,
굼뜬 눈물이 흘러갈 뺨조차 없어

<모든 것 후에>

-

젓빛이 하늘을
전부 가리고
가장 낮은 부분만 남겨서

곡선으로 미끄럼타는 온풍
나지막한 언덕
뺨가루
하늘 맨 아래 가로넓은 푸른 띠
그 아무리 넓어도
기대어 넣진 못 하니

오래된 갈증 위에
저 멀리
상아빛 낙타 두 마리가
대화 없이 저물어

<하얀 사막>

-

<부재>

-

뚝

존재를 느끼다
이러면 안 되는데

<손가락>

-

웃

<존재>

-

모래가 푹긴다
자잘히 일어 해친다
급한 시선이
눈부신 광야의 광활한 가로선을 따라가
모든 사물의 구부정한 표면에 닿아서
걸리적거려
걸어내고 싶은데

멀미가 어른거려
걸어차고 싶으면서

고집스럽게도 빌어
몸이 없기를

<애써 만든 착각>

-

몰래
증발하는 꿈을 꾸려했는데

<실패>

-

전혀

<무얼 할 수 있었을까>

-

웃

사람이 치웃 자로 뺨고 누웠다
찬 바람과 찬 땅에 열을 뺏긴다

六

사람이 육 자로 뺨고 누웠다
머리 몸통 팔 다리 팔 다리

웃

사람이 웃 자로 뺨고 누웠다
목과 사지에 밧줄이 묶인다



잘못했어요
용서해주세요

잘못한 만큼 세계

쉬이 끊기는 육체

당겨라!

데구르르
정신없이 나뒹굴어
힘없이 멈추어선 토막의
죽은 껍질이
가만히
눈송이 털 끝에 달아 간지럼 탄다

<형벌>

-

스스로 별주어 남은 건

보이지 않는, 떠있는, 산 심장

투명한 역삼각형의

핵, 맥

<빨간 점>

-

저는 용서를 간절히 배우지 않으면
바스라질 것 같습니다

제가 물려받은 분노는
가슴 끝 세 번째 젖꼭지처럼
원치 않아도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

신실한 믿음
무섭게 끓는 나쁜 피를 달래야
구원 받는단 믿음

저는
특하면 뜨거워진 화가 역겨워
힘 추욱 빼
늘어진 채
기다리고 기다리다

어슴푸런 윤곽에서 인간다운 성숙함을
한 모금씩 맛볼 때마다
무안할 정도로 벅차오릅니다
어서 달려가
끌어안고 싶지만

'아니야, 기다려'

아닌데, 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

지금
조금씩 바스라집니다
바닥에 바스라기가 됩니다
쭈지도 못 할 만큼
작아서
모양도
능력도 잃습니다

아무런 힘이 없습니다
분노도
함께 잃습니다

화가 없으니 이것도 용서일까

이 아리송한 형태의 용서는
더이상
놀란 근육처럼 수축하지 않고
무엇을 충동하지도 않습니다

풀풀
흘날리며
무생물로 생존합니다
아무것도 주워담지 않습니다

냄새나는 구토를 눌러 삼키며

<바스라기>

-

어둡게 번지는 안개 속 그는
생채기가 가려워

눈꺼풀 아래
억지 냉정함이 고인다

가려운 곳엔 약솜 한 덩이
그가 지금 가장 갖고픈 건

숨으로 만든 가슴
그건 찢어도 피 흘리지 않는 가슴
바늘의 끝이 미끄럽게 지날 뿐

폭신히 스미어
아픔에 고이 놓아도 좋아

<숨으로 만든 가슴>

-

앞이 열렸어

다시 끝없고 좁은 길을 걸었을 때
좌우로 어두운 들판이 널렸고
앞뒤로 가파른 내리막이 있었어

네모 분절된 구름들

및

땅거미; 꺼지지 않는 보랏빛 화면

땅구멍; 날카롭게 서리 붙은 지면

그곳에

잔뜩 뭉그러져 엮드린 장면들과

굴
러
떨
어
져

축
척
하
는

발음, 시샘, 불멘소리, 눈치, 선부름, 새벽의 목죄임

<환상 아래 어둠>

-

[낮은 곳]

쌈쓸

<흑막>

-

선명

동물 울음

메아리

흰 가지를 헤치고 빈 그 달빛

유리 조각이 만든 이불처럼 목을 갈아

<빔>

-

누가 자아꾸 짓네

거 누구야아

꺼억 뜯어내린 껍질

터억 손 잡는 낙엽

소스라치긴

중력일 뿐아

머리 위 나부끼는 저것도 그림자일 뿐아

<중력>

-

낮은 곳으로
더 망칠 수 없는
더
내려갈 수 없는 가장
낮은 곳

이제 네 자신이 보이니?
죽지 않는 알맹이로 남았지
지랄과 육감도 견딜 수 있어

<알맹이>

-

고라니 울 듯이
내가 울었어

인간들이 쳐다보았어

—이건 우리 안에 감췄고
무서운 종류의 사슴이야—

세상 떠날 듯이
내가 울었어

몸통만 한 톱이
철판 위에 미끄러지고

몸통만 한 피리가
뭇생긴 배음을 내었어

—놀라지 마. 우리 안에선
우릴 해칠 수 없어—

마주보았어
까맣고 볼록한 두 눈을 껌뻑

전혀 해칠 마음이 아니라고
다른 동물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
그저 노려보았어

내가 그들을
그들이 나를

<고라니>

-

부름뜨다

생각이 보이다

너는 결국 내게서 멀어졌구나

노력

저시력

차라리 덜 봤으면 해

그럴 리 없지 영영 예민할 저주

<동공>

-

눈빛으로 안 돼
꼭 말을 해야 알지

웅얼—

그런데
수치감은 소리가 퍼진 공간만큼
웅크려도 그만큼

입에서 입으로 옮길 이야기
입맞춤이라도 해야 할지

쫓

그러지 마
습관, 아니 전혀 무엇도 없이 그래서
그래서 그래

부담감이 묻은 입가에
단어들이 엉겨붙어 희한한 혼잣말을 만들어

<희한한 혼잣말>

-

무슨 말이 하고 싶었지
우리가 나아갈 길이 한참 남았지
사랑은 오래참음인데

두 남자가 나란히 누운 걸
그걸 덮어버렸어

한
문장을
완성하지 않아도 돼
치아 사이로 뺨뽀뽀 빠져나도 돼

내가 아는 말 중엔 없어, 이 꿈은

<모르는 말>

-

겨우 그 정도야 없어야 할 뿔이 막 자라서
뒤틀리고 이상한 게 날 똑닮았는데 외면하고
싶었어 미워하고 싶고 다른 척 아닌 척 하고 싶었어
그런 나의 앞에 뿔이 너무 많아 숲으로 됐는데
숲으로 우거진 나뭇가지가 너무 많아서
명치에 슬픔이 걸린 것 같았어

<뿔>

-

눈도
입도 아니면
우리 이제
어디를 맞춰야 하지
가슴을 해볼까 아니면
살을
맞대어 다리 사이로 이리
이리 와봐
다시 무릎

발끝도
봐봐
이게 안 돼?
너도 이렇게
너도 해봐
안 돼?
왜 안 돼?
대체 어딜 해야 말이 되나

왜 그렇게 봐요
나를 알아요?

세상에 고라니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
이렇게나 많잖아

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?

<여러 남자>

-

그것 따위가 좋아지면 어떡하지
너는 존재부터 잘못됐어

가축의 눈망울에 멎힌다
억울이 방울 돼 멎힌다
무릎에 묻힌다

그새 찌르지
침엽이 바늘 되어 찌른 뒤에
나쁜 피가 멎힌다
이슬처럼 양각의 점으로 멎힌다

습습한 낙오자의 혀
어깨 밑 고릿한 나그네 향

패배감 문지른 무릎
주름 사이 음각이 아직 춤다

손 뻗으면 닿는
죄 없는 술뿔만 꺾는다

<탓>

-

다가오지 마

멀어지지도 마

<밤송이>

-

감기 없이 자란 잎은 참 연해서
부수면 부순 대로 다 부서져

심한 독감을 앓은 잎은
피어도 피어도 꽃처럼 피진 않아

마르고 활짝 갈라져
피어도 피어도 꽃처럼 피진 않아

애정 없이 자란 잎은 참
만만하게
피어도 꽃처럼은 아니야

<솔방울>

-

검정으로 물든 잎은
어둠이 감돌 때 의연한 거야

검정보다 검은 게 없어서
두려울 게 없는 거야

우주가 밝은 빛을 잃으면
모든 감정을 차분히
눈을 감듯 감을 거야

그리고 잠에 들 거야

<검정>

-

【여전히】

시르
시르르르르 소리내 진동하는
헛도는

<사포 같이 거친 풀밭>

-

파르르 떨어져 날지
떠나지
파르
파르르르

<잠자리 떼>

-

요 부분의 땅

오래전
얼굴도 모르는 누가 돌을 심었을까
그 돌에 거대한 시간이 붙잡혀서
땅이 바다가 되고
다시 얼어 육지가 될
때까지도

나는
이 지점을
피해 설 수가 없다

<과거와 현재의 벌어진 사이에서>

-

여기 바닷속은 아니지
숨 힘든 이유 그 때문 아니지
짴맛도 착각이지

머리카락 털고 손바닥 비비고
떨어지는 땀, 메스꺼움과 맨정신이
진 흙바닥에 출렁거려

숨 참아

어느새 적어날다
딱 붙은 그 흉곽에

<수압을 견뎌라>

-

기억이 물결 따라 일렁여
폭발의 광열 얼굴을 덮혀

<갑자기>

-

절벽 아래

여러 곳
붉은 꽃
굉음을 내며
피었다 증발하여
검게 무너진 나의 동네가
오묘한 행복을 주어서
감출 것도
참을 것도 없이 나는
흐드러진 꽃밭을 달리기만 하는 거야

하
하

삼시간에 전부 가네
저기
웃기게 생긴 구름 하나 있다

하
하하하하하

<웃기게 생긴 구름>

-

모든 건 ≡&ㅂ료:?! 자로 쓰러져 누웠다
모든 건 ../:-£€{누눴ㅇ 자로 쓰러져 누웠다
모든 건 1!3\$뽕“>7-,5 자로도 쓰러져 누웠다

<골목길>

-

계세요?

<앞마당>

-

우린 지금 삶이 모자란데
바닥 긁어 모으려 해
뭐가 나오지도 않는데

기운 벽에 기대어 쉬다가

등 쭈신 바람
소리에 서둘러 나와
돌아보니까

집 한 채
그리움 비친 그림자마냥 멀뚱히

<가옥>

-

오늘은 이상해
해가 뜨다 말다 그러지
일부러
헛갈리게 그러지

시끄러이 웅친 색깔들이
지붕 타고
미끄러져 내려 똑 떨어지지

발바닥으로 칠해
영망진창 무지개

이건 영

<지붕>

-

오래된 그네 녹슨 사슬이 끼룩

말하려는 게 뭐야
다시 해봐

끼룩

<그네>

-

끼룩

끼

끼룩 루욱 끼루욱

<뒷마당>

-

마을에 눈이 내린다

대여섯 잠자리 파르 파르

제자리 또 제자리

어슬렁이며 한 걸음

사람 한 구

그림자 비친 시신마냥 멀뚱히

<마을>

-

눈보라여

흰 광야의 빛으로 눈이 멀기 전에

잔뜩 내려 시야를 덮어주라

어깨에
발등에
천사백이십칠 킬로그램의 용서를 지고
책임에 눌러 호흡 못 하게

가엾게
운치 없게
권위 없이 가게

<무거운 짐>